

광주시, 위기의 대학 구하기 나선다

교육청·대학들과 손잡고

‘대학발전 협력단’ 신설

신입생 모집·학사 운영 등 지원

광주시가 신입생 정원 미달이 속출한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청, 대학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교육 분야인 지역 대학 문제를 지방행정 범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기청 ‘대학발전 협력단’을 신설해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와 시교육청 공무원, 대학 등 파견 인력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학의 위기를 지방자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까지 전 과정에서 기관별 정책과 지원을 총괄 관리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계획이다. 대학발전 협력단은 광주시 10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학 지원 관련 27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 관리하고, 교육청, 대학과 연계해 업무 효과는 물론 지원 범위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장은 또 대학발전 협력단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교육 전문가들로 기청 ‘지역 대학 위기대응 전문가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대학발전 협력단의 활동을 조언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광주에는 종합대학 11개, 전문대 7개 등 18개 대학에서 지난해 4월 기준 8만 450여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지역 거점대인 전남대학교까지도 일부 학과 신입생이 정원 미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가뜰이나 부족한 지역 청년



GGM, 설비시설 시범 운전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설비시설 시범 운전에 들어갔다. 다음달 시험생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완성차 양산에 들어간다. GGM 공장 내부의 차체를 조립하는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의 수도권 인재 유출, 학령인구 감소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2~3년 뒤 전국 70개 이상 대학이 폐교하고, 학령인구가 적은 남쪽부터 폐교가 속출해 빚어지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학 위기는 지방 위기이고 폐교는 학습권 침해, 교직원 일자리 감소, 인재 양성과 연구 기능 미흡으로 이어져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황폐화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 시장은 “지역 대학의 발전을 교육부 등 중앙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다고 판단해 대학도 지방자치의 범주에 포함해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지역 대학과 함께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산업 등과 접목한 학과개설 등을 포함한 전문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우수 인재들까지도 광주를 찾아오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UN인권위에 전달

광주시, 종교단체와 실천방안 논의
지속적인 지원 방법 마련 계획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UN인권위원회에 미안마 민주화 운동 지지 의사를 정식 전달한다.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해 10회째를 맞아 UN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공동 주최를 통해 맺은 연대관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종교단체, 시의회, 시교육청, 5·18기념재단,

미안마 광주연대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안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중 전주고 광주대학교장, 도성 광주불교 연합회장, 남택률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상임 부회장, 장덕훈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김중재 광주향교 전교 등 5대 종단 대표와 이 시장, 김용집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이철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 세계 인권 도시 포럼 참가 도시에 미안마 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국제 사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제10회 세계인권포럼으로 인

연 맺은 UN인권위원회측에 미안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광주의 뜻을 정식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시 기조발제자로 나선 미 UN인권최고대표와 광주시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 광주의 뜻이 (UN측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안마 지지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5·18도 민주화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처럼 미안마 국민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제66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14일(수) ~ 21일(수)
미술·작문·새싹 7월 1일(목) ~ 8일(목)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제66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또 미술·작문·새싹그리기축제는 작품 공모전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창사 69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 호남 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 4월 27일(화)~7월 8일(목)
- 접수방법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우편신청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양
- 경연일정 : 홈페이지 대회요강 참조
- 시상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문의 :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후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목포시·나주시

光州日報社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2면

KIA 브룩스, NC전 4.20인성 5K 무실점 ▶18면

굿모닝 예방 - 광주 동명동 100배 즐기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형산불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일으킨 산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산불조심기간 3월-4월



광주광역시
GWANGJU CITY